

### 경제위기와 비만을

불황 선진국 늘고 한국은 안정적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일부 선진국에서도 비만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7일(현지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34개 회원국 중 10개국의 자료를 받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8~2012년 5년간 비만은 증가세가 둔화하긴 했지만 꾸준히 늘었다.

자료 제출국 가운데 특히 호주, 캐나다, 프랑스, 멕시코, 스페인, 스위스는 비만율이 2~3% 포인트씩 증가했다. 이에 비해 영국, 미국, 한국, 이탈리아는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됐다.

보고서는 일부 선진국의 비만율 증가는 2008년 경제 위기로 타격을 받은 가정에서 가장 먼저 식비를 줄였고, 과일이나 채소 등 건강에 좋지만 비싼 음식 대신 싸고 칼로리가 높은 정크푸드 등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2007~2009년 미국에서는 실업률이 1% 늘자 과일과 채소 소비가 5.6% 줄었고, 영국에서는 2008~2009년 사람들이 구매한 음식의 평균 칼로리 밀도가 4.8% 늘었다. 또 일자리를 잃으면서 신체 활동이 줄어드는 것도 비만 증가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1980년까지 OECD 회원국에서는 10명 중 1명 미만이 비만이었지만 현재는 성인의 18%가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멕시코와 뉴질랜드, 미국에서는 성인 3명 중 1명이, 호주와 캐나다, 칠레에서는 4명 중 1명 이상이 비만이었다. 어린이는 평균적으로 5명 중 1명이 과체중이었다. /연합뉴스

### 경제수준과 암

높으면 피부암·낮으면 간암 빈발

사회경제적 수준 따라 잘 걸리는 암이 다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뉴욕주 암기록센터의 프랜시스 보스코 박사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가장 높은 계층은 갑상선암, 흑색종(피부암), 고환암에 잘 걸리는 반면 가장 낮은 계층에서는 간암, 자궁경부암, 후두암, 카포시 육종, 음낭암이 빈발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고 메디컬 뉴스 투데이가 27일 보도했다.

2005~2009년 사이에 미국에서 암 진단을 받은 290만명을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4그룹으로 나누어 비교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나타났다고 보스코 박사는 밝혔다.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계층은 낮은 계층에 비해 암 발병률은 높고 암 사망률은 낮았다.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계층은 이와 반대로 암 발병률은 낮은 반면 암 사망률은 높았다.

이는 암에 관한 한 가난한 사람들은 암으로 인해 사망할 가능성이 높고 부유한 사람들은 암을 지닌 채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스코 박사는 해석했다. 이 조사결과는 '암'(Cancer) 최신호에 실렸다. /연합뉴스

## 일본, 美 하원의장에까지 '위안부' 총력 로비

로펌 동원 미 행정부 등 상대 기림비 저지 나서

독도·교과서 동해병기 문제 등 광범위 전개

미국 각지의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 설립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미국 정치권을 상대로 군대 위안부와 독도, 동해병기 문제와 관련해 총력 로비를 전개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로비 대상에는 미국 의회 내에서 영향력이 큰 하원의장과 하원 외교위원장이 포함된다. 로비 목적에 지방정치 사안인 버지니아주 동해병기 교과서 채택문제까지 들어있어 일본의 대미 로비가 얼마나 강도높고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실감케 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의 FARA(외국로비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주미 일본대사관을 통해 워싱턴 대형 로펌인 '헤트 스펜서 앤드 어소시에츠', '호건 로벨스'와 용역계약을 맺고 미국 의회와 행정부, 싱크탱크를 상대로 로비를 전개했다.

계약 내용은 미국 하원의원과 참모들을 상대로 일반적인 일본 정부의 입장과 외교관계를 대변하는 차원을 넘어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된)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군대 위안부'와 관련한 2차 세계대전 관련 사항 ▲버지니아주의 동해병기 교과서 채택 법안과 관련해 로비를 펴는 것이었다.

헤트 스펜서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6개월간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에드 로이스(공화·

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 켄 캄버트 하원의원 등을, 호건 로벨스는 같은 기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당시 백악관 참모를 지낸 다나 로라바처(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원, 하원 외교위 간사인 엘리엇 엔젤(민주·뉴욕) 하원의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보좌관 출신인 마이클 그린 CSIS(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 등을 상대로 면담 또는 이메일 접촉을 가졌다.

헤트 스펜서 측은 지난해 11월 베이너 의장과 면담을 가졌으며 로이스 위원의 경우 지난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무려 다섯차례에 걸쳐 면담과 전화통화, 이메일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6개월간 헤트 스펜서와 7만5000 달러에, 호건 로벨스와 21만 달러에 각각 용역계약을 맺었다.

두 로펌이 일본 정부와 계약을 연장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헤트 스펜서의 경우 2000년대 초반부터 주미 일본대사관과 용역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은 현재 미국 각지로 확산되고 있는 위안부 기림비 건설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워싱턴지역 정선대문제 대책위원회는 2012년부터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에 기림비 건설을 추진하면서도 일본의 조직적인 반발을 우려해 일절 비밀에 부쳐 왔다. /연합뉴스



무장한 태국 여성 군인 앞에서 구테타에 항의해 시위하는 시위대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 “집단지위권 매듭 후 美日 가이드라인 개정”

미 정부, 일본 측에 전달

미국 정부는 연내로 목표 지점을 정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에 앞서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일본의 헌법해석 변경 작업이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최근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교도통신이 28일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측근이자 주한대사 내정자인 마크 리퍼트 미국 국방장관 비서실장은 이날 상순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집단 자위권에 대한 내용을 담으려면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가이드라인 개정 전에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매듭지을 것을 일본 측에 요구했다고 교도는 전했다.

1978년 제정돼 1997년 한차례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미일동맹의 군사적 근거가 되는 중요한 문서다. 미일은 남·동중국해에서의 해양진출 확대 등 '중국 변수'를 반영해 올해 말까지 가이드라인 개정작업을 마친다는 목표에 합의했으며, 그에 따라 현재 외교·국방 당국간 협의를 진행하

고 있다. 미측이 '선(先) 일본 국내절차-후(後) 가이드라인 개정'을 명확히 한데 대해 교도통신은 '집단지위권에 대한 일본 내 협의가 순탄치 않으면 가이드라인 개정을 내년 이후로 연기해도 좋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속내가 엿보인다고 분석했다. 통신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중국 견제를 위해 연내 가이드라인 개정을 고집하는 반면 미국은 중국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며, 양국의 대 중국 전략에서 차이가 부각된 모양새라고 설명했다.

집단지위권은 동맹국 등 밀접한 관계를 맺은 국가가 공격당했을 때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대신 반격하는 권리다.

아베 총리는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헌법 해석을 변경하겠다는 구상을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공식 표명한 데 이어 20일부터 연립여당(자민·공명) 협의를 시작했지만 공명당이 '신중론'을 굽히지 않음에 따라 논의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 집 뒷마당서 발견 '110억원 보물상자'

1874년산 '20달러 쌍독수리 금화' 경매 나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에 사는 한 부부가 집 뒷마당에서 개를 산책시키다가 발견한 '노다지'가 경매에 나왔다. 숨겨져 있다가 발견된 보물상자로서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다.

화폐 수집상 돈 케이긴은 27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도심의 유명한 사적지인 '올드 샌프란시스코 민트'(옛 미국 조폐창)에서 1874년에 만들어진 액면가 20달러짜리 '쌍독수리 금화'를 경매에 부친다고 밝혔다.

그는 익명을 요구한 고객의 의뢰로 이 금화의 경매를 대행한다고 설명했다. 이 금화는 경매가 열리는 조폐창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케이긴에 따르면 경매 대행을 의뢰한 고객은 캘리포니아 북부 시에라 네바다 지역에 사는 부부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집 뒷마당에서 개를 산책시키던 도중 옛날 금화·은화·동화 1427개가 나무 그늘 아래에 묻혀 있는 것을

발견해 이를 당국에 신고했다. 신고 후 1년간 자기 조상이 원래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많이 나타났으나 이 중 믿을만한 근거를 제시한 사람은 없었고, 이에 따라 당국은 보물을 발견한 부부에게 소유권을 인정했다.

이 보물상자를 땅에 묻은 사람이 누구일까에 대해서는 온갖 추측이 나돌고 있다. 블랙 바트, 제시 제임스 등 미국 서부 개척시대에 악명을 떨치던 무법자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으나, 증거는 없다. 이들이 발견한 금·은·동화는 1847~1894년 주조된 것으로, 케이긴의 감정에 따르면 시가가 1100만달러(약 110억원)에 이른다.

케이긴은 이날 저녁부터 나머지 물건을 아마존닷컴(www.amazon.com)과 자신이 운영하는 케이긴닷컴(www.kagins.com)을 통해 판매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두암신협**  
50억 한시 특판

정기예탁금 1년 **3.1%**  
알찬예탁금 최고 **2.9%**  
수시입출금통장

**더 높은 이율과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1인당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본점: 263-0136 (말바우 사거리)  
울곡지점: 264-1232 (두암중학교 입구)  
첨단지점: 572-9511 (호반아파트 정문 맞은편)

www.yh-bus.com

**예향 고속관광과 함께 떠나요!**  
힐링여행

회사 출·퇴근 버스임대 - 여행지 사전예약  
단체여행 버스대절 - 최신버스 저렴한 가격  
최상의 서비스 및 예약자 선물증정

**예향 고속관광**  
YEHYANG TOUR

고객상담 및 예약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동 805(혹석사거리)  
TEL.062.944.5775 FAX.062.944.5995